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教 育 學 碩 士 學 位 論 文

夏目漱石의 『三四郎』 論

- 美禰子の 心境 變化를 中心으로 -



2010年 8月

釜慶大學校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具 海 仁

教 育 學 碩 士 學 位 論 文

夏目漱石의 『三四郎』 論

- 美禰子の 心境 變化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崔 蓮 姬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10年 8月

釜慶大學校教育大學院

日語教育專攻

具 海 仁

具海仁의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8月



主 審 尹 一 (印)

委 員 崔 蓮 姬 (印)

委 員 金 祥 圭 (印)

목 차

* Abstract

I. 서론	1
1. 연구목적	1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6
II. 본론	9
1. 『三四郎』시대의 여성	9
2. 美禰子の 心境 變化의 過程	14
2-1. 美禰子와 野々宮	14
2-2. 美禰子와 三四郎	26
2-3. 美禰子와 <立派な人>	48
III. 결론	55
참고문헌	59

Theory of Natsume Soseki's 『Sanshiro』

Hae In Gu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anshiro』 is a full-length novel which is collection of 117 articles, was published in Asahi newspaper since September 1st to December 29th in 1908. Right after this novel published, a pond place in Tokyo university which is first place that main character 'Sanshiro' and 'Mineko' met in, became 'Sanshiro pond.' As it shows, this novel has gained in popularity from it published and until now. Author Natsume Soseki well expressed a portrayal of woman in the age of western modern culture rapidly poured in Japan.

Most of exiting interpretations of 『Sanshiro』 are masculine notions, however, this paper will discuss different approach to consider the novel with Mineko as central figure. Focused on Mineko's marriage as independent choice, this paper will study that the progress of her mind changes about how she marry other man than Sanshiro or Nonomiya.

Even Nonomiya pursues outstanding education, he is inconsiderable of Mineko and shows economic troubles. Due to his situation, he avoids his responsibility and thinks that marriage is impossible for him.

Sanshiro is a guy from the countryside to enter university. He doesn't mind to marry than and he wants to devote himself solely to learning. He, though, is not brave enough to get close to Minek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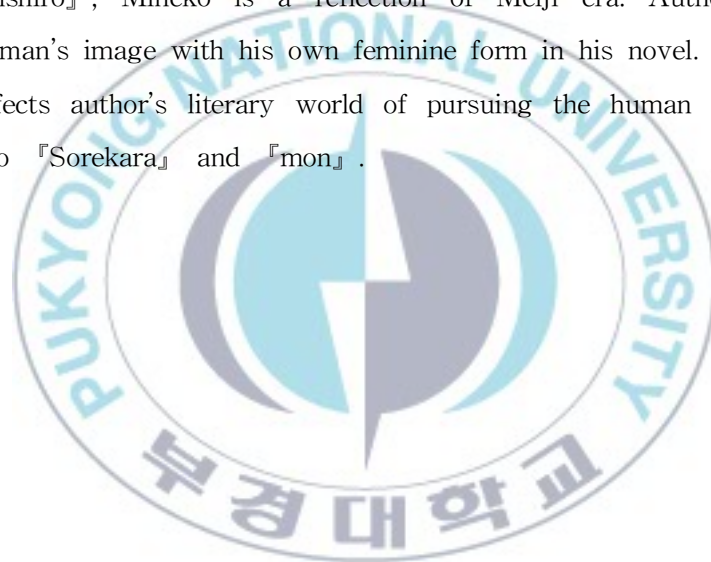
<Noble man> is a capable man with a good knowledge. His positive attitude

gains Mineko's trust and finally she married him.

Mineko doesn't frustrated that she wandered between <a buck passer> Nonomiya and <a fainthearted man> Sanshiro. Looking for a new start, she hews her way as an active woman. She changes her mind when she felt trust and love from <noble man> who is with knowledge and competence.

Through 『Sanshiro』, Natsume Soseki depicted a portrayal of human mind about love through an woman, Mineko. She chose to be independent, not to be frustrated about what she experience, and it helps her to start new life.

In 『Sanshiro』, Mineko is a reflection of Meiji era. Author combined modern woman's image with his own feminine form in his novel. Her changed attitude affects author's literary world of pursuing the human mind and it continues to 『Sorekara』 and 『mon』.



I. 서론

1. 연구 목적

『三四郎』¹⁾는 청춘연애소설, 明治시대를 그려낸 풍속소설, 일본사회를 비판한 문명비평소설, 남녀의 만남을 회화적으로 묘사한 회화소설, 한 청년의 인간형성 과정을 그린 교양소설, 개인의 자아 성장과정을 그린 성장소설 등이라 불리며 다양한 관점에서 읽히고 연구되고 있다.

「うとうととして眼が覚めると女は何時の間にか、隣の爺さんと話を始めている」²⁾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주인공의視線이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눈을 뜬다는 의미는 새로운 세계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어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이 후 기차 창 밖에서 서양여자의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고 주인공 三四郎는 표현하며, 東京에 도착해서는 학교 연못가에서 美禰子를 처음 만나 관심을 갖게 되는 三四郎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이다.

특히 이 소설은 三四郎와 野々宮, 美禰子등의 등장인물 간에 연애관계를 통하여 청춘연애소설로 읽히지며, 소설의冒頭부분에서 주인공의 시선이

1) 『三四郎』는 1908년(明治41) 9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29일까지 117회에 걸쳐서 東京, 大阪의 朝日新聞에 연재된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이 발표된 후 주인공 三四郎와 美禰子が 처음 만났던 東京대학 내에 위치한 연못이 「三四郎池」라고 이름 지어질 만큼 그 당시 큰 인기를 끌었고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漱石은 『三四郎』에서 서양의 근대문화가 일본에 급격하게 흘러들어와 변화하는 明治시대의 모습과, 당시의 신여성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2) 『夏目漱石全集』第4卷, 筑摩書房, 1979, p.3. (본고에서는 텍스트로써 『夏目漱石全集』第4卷, 筑摩書房, 1979.를 사용하고, 이하 원문 인용면수만 밝히도록 한다. 본고의 밑줄은 논자에 의하였다. 이하 동일)

여자로 시작되는 것에 착목하여 본 작품을 읽고자 한다.

유상희는 「夏目漱石의 『三四郎』小考-산시로와 미네코의戀愛를 중심으로-」에서 「주인공 三四郎의 활동 중심이 美禰子와의 접촉에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이 소설은 연애소설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여겨진다」³⁾고 하여 연애에 초점을 맞추어 논하며 三四郎과 美禰子の 만나는 장면을 하나 하나 분석해 가는 방법으로 논을 전개하고 있다.

또 오준영은 「『산시로』에 그려진 연애의 풍경- 베이컨의 23페이지를 밑그림으로 하여」에서 「『23페이지』에 나타난 베이컨의 연애관, 즉 남자가 『위대한 정신』을 견지하고 『위대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애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과 남자가 연애감정에 휩싸이게 되면 여자를 우상으로 만들어 결국 그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주장을 각각 野々宮과 美禰子, 三四郎과 美禰子の 관계를 통해 패러디화 함으로써 메이지 지식인층 사이에서 실체 없이 유행하였던 「러브」를 냉철한 시선으로 파악하고자 했던 것이다」⁴⁾라고 夏目漱石의 작품의도를 말하고 있다. 漱石가 작품에서 「二十三頁」를 여러 차례 강조한 것을 보면 그것이 단순한 것이 아닌, 작가의 의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작품 시작부터 주인공의 시선은 여자에게 집중되어 있고, 고향 九州를 떠나 東京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베이컨논문집 23페이지를 읽으면서 베이컨의 연애사상을 은근히 비추고 있다. 그리고 東京에서 美禰子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면서 내용이 전개되어간다. 이러한 점은 『三四郎』를 연애소설로 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또 작품 속에서 三四郎은 세 가지의 세계를 생각하고 있다. 첫 번째 세

3) 유상희, 「夏目漱石의 『三四郎』小考-산시로와 미네코의戀愛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第29輯,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5, p.288

4) 오준영, 「『산시로』에 그려진 연애의 풍경- 베이컨의 23페이지를 밑그림으로 하여」, 『나쓰메소세키의 전기삼부작 연구』, 제이앤씨, 2005.8, p.252

계는 明治15년 이전의 모든 것이 평온한 대신 모든 게 잠이 덜 깨어있는 현실도피처와 같은 곳이다. 그 안에 그리운 어머니가 있다.

三四郎には三つの世界が出来た。一つは遠くにある。与次郎の所謂明治十五年以前の香がする。凡てが平穩である代りに凡てが寢坊氣でいる。尤も帰るに世話は入らない。戻ろうとすれば、すぐに戻れる。ただいざとならない以上は戻る気がしない。云わば立退場の様なものである。(p.44)

三四郎는 고향의 어머니와 편지로 이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 돌아가려고 하면 곧바로 돌아갈 수 있는 평온한 곳으로 東京생활이 힘들 때마다 그는 어머니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있다.

두 번째 세계는 넓은 열람실이 있고 사다리를 놓지 않으면 손이 닿지 않을 만큼 높게 겹겹이 쌓은 책이 있는 학문의 세계이다. 생활은 가난하지만 마음이 편한 이곳은 広田先生와 野々宮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第二の世界のうちには、苔の生えた煉瓦造りがある。片隅から片隅を見渡すと、向うの人の顔がよく分らない程に広い閲覧室がある。梯子を掛けなければ、手の届きかねる迄高く積み重ねた書物がある。(中略) 生計は屹度貧乏である。そして晏如としている。電車に取り巻かれながら、太平の空気を、通天に呼吸してはばからない。このなかに入る者は、現世を知らないから不幸で、火宅をのがれるから幸いである。広田先生は此内にいる。野々宮君も此内にいる。三四郎は此内の空気を略解し得た所にいる。出れば出られる。然し折角解し掛けた趣味を思い切って捨てるのも残念だ。(p.44)

九州에서 東京으로 상경한 三四郎는 새로운 학문에 대한 기대로 가득차 있다. 「熊本より東京は広い。東京より日本は広い。日本より…… 日本より

頭の中の方が広いでしょう。」라는 広田先生の 말처럼 일본보다 넓은 머리 속 학문의 세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세계는 모든 것 위에 으뜸으로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곳으로 三四郎에게 있어서 코앞에 있지만 다가가기 어려운 가장 그윽한 세계이다.

第三の世界は櫛として春の如くうごいている。電灯がある。銀匙がある。歓声がある。笑語がある。泡立つ三鞭の盃がある。そして凡ての上の冠として美しい女性がある。三四郎はその女性の一人に口を利いた。一人を二遍見た。此世界は三四郎に取って最も深厚な世界である。此世界は鼻の先にある。ただ近づき難い。

(p.44)

이처럼 세 번째 세계는 찬란하게 봄처럼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三四郎가 가장 관심 있어하는 세계이다. 그 곳 가운데 美禰子が 있다. 대학 연못가에서 美禰子를 만나면서 三四郎에게 세 번째 세계는 시작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三四郎』에서는 여자 주인공 美禰子를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三四郎의 세 번째 세계에 있는 여성 美禰子の 사랑을 중심으로, 美禰子の 心境 變化의 과정을 면밀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三四郎의 시각이 아닌 美禰子の 시각에서 세 가지의 세계는 그녀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고찰은 작품을 三四郎, 野々宮의 중심으로 읽혀왔던 것에 벗어나 美禰子를 중심으로 작품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달리 美禰子를 중심으로 한 연애소설임을 증명할 것이다. 나아가 그녀의 心境이 순차적으로 작품 속에서 어떻게 變化하는지 정리하여 美禰子の 심리를 이해하고자 한

다. 이는 그녀의 결혼이 주체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며, 『三四郎』가 쓰여진 明治말기의 신여성 이미지와 작가 漱石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이 혼합되어 漱石의 시각으로 보는 새로운 시대의 여성모습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 선행연구 및 문제제기

『三四郎』를 청춘연애소설로서 볼 때 연구자들은 당연히 三四郎의 상대 美禰子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美禰子が 三四郎를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닌지의 관점으로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酒井英行의 「美禰子は野々宮を愛していたのであり、三四郎への愛は無かったと思う」⁵⁾라는 견해, 千種キムラ・スティーブンの 「主として美禰子の野々宮への愛が描かれている」⁶⁾라는 견해, 中山和子の 「うぶな三四郎は、いたずらにはちょうど面白い」⁷⁾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와 반대로 「三四郎への愛は美禰子のなかに確實にあつた」⁸⁾라고 보는 三好行雄의 견해도 있다.

또한 美禰子の 결혼에 대하여 小森陽一은 「男と結婚することなしに、つまりは男の経済的支えなしに、単独で生きてゆくことのできぬ、日露戦争後の女たちの状況を、里見美禰子も共有していたはずなのです」⁹⁾라고하며 美禰子の 결혼에 대해 시대상황과 여성의 결혼과 경제적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中山和子は 「恋愛の為に結婚するのでは無く、衣食の為に結婚するのである。即ち、女子は其一身を抛つて地位を買ふのである。其節操を売つて職業を求めるのである」¹⁰⁾라고 하며 상업결혼으로 보고 여자의 성 상품화를 지

5) 酒井英行, 「広田先生の夢—『三四郎』から『それから』へ—」, 『文芸と批評』, 1978.7, p.13

6) 千種キムラ・スティーブン, 「『三四郎』試論(続)—迷羊のつい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83.5, p.164

7) 中山和子, 「美禰子は何か」, 『国文学 解釈と教材の研究』, 學燈社, 1981.10, p.40

8) 三好行雄, 「三四郎(三)」,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66.3, p.154

9) 小森陽一, 「『帝国』というネットワーク(文学とメディア—夏目漱石『三四郎』, 1908年)」, 『文学の方法』, 東京大学出版会, 1996.4, p.324

10) 中山和子, 「『三四郎』—『商売結婚』と新しい女たち—」, 『漱石研究 第2号 1994 [No.2]』,

적하고 있다.

그리고 瀬崎圭二는 「自らの商品性を自覚し、結婚を通じて交換されていく中流階層の女性の様相だ。(中略) 夫に対する<愛>が不在のまま、夫を軽蔑しながら『望んで嫁に来』るという点において、まさしく<虚栄>と呼ばれる結婚に他ならない。」¹¹⁾라며 중류계층 여성의 허영적인 모습을 지적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美禰子の 사랑과 결혼에 관련하여 다양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논자는 三好行雄의 美禰子에게 三四郎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견해에 찬성하고 있다. 『三四郎』의 내용 자체가 三四郎과 美禰子を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작품을 美禰子の 중심으로 보면 그녀의 선택은 野々宮에서 三四郎로,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로 변화되어 가고 있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美禰子の 결혼은 시대 상황 속에서 볼 수 있는 허영과 좌절이 아닌 본인의 의지이며 주체적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본고에서는 美禰子の 결혼이 주체적인 선택이었음에 초점을 맞추고, 美禰子が 三四郎을 사랑하였다는 점에서 더 나아가 三四郎도 野々宮도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에서, 그녀의 선택이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그녀의 심중변화 부분을 면밀하게 연구해보고자 한다. 심중변화를 살펴봄으로써 그녀의 결혼이 주체적인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존의 三四郎, 野々宮인 남성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닌 美禰子を 중심으로 『三四郎』를 읽음으로 三好行雄의 「美禰子の結婚が主体的な選択だつた。」¹²⁾라는 논을 재확인하고 그녀의 심경의 움직임을 좀 더

翰林書房, 1994.5, p.117

11) 瀬崎圭二, 「<虚栄>の内実—『三四郎』の中の結婚—」, 『國語と國文學』, 東京大学国語国文学会, 至文堂, 2004.6, p.34

12) 三好行雄, 「三四郎(二)」,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66.2, p.128

세밀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三四郎는 美禰子が 있는 세 번째 세계를 다가가기 어렵다고 생각했기에 그녀와의 관계에서 진전이 없었고, 결국 자신의 시야를 그림 속 여인 美禰子로 한정지어 버리는 데에 그쳤다. 또한 野々宮는 두 번째 세계 학문에 있는 자로서 美禰子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그의 애매한 태도와 책임감을 회피하는 모습은 자신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美禰子の 마음을 방황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美禰子は 자신에게 적극적이고 학문적으로 뛰어나며 경제적인 능력을 갖춘 훌륭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된다.

먼저 美禰子を 중심으로 그녀의 생각과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살펴보겠다. 野々宮, 三四郎, <立派な人>와 美禰子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마음이 변화되는 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1. 『三四郎』 시대의 여성

『三四郎』가 쓰여진 시대를 살펴보기 위해 작가 夏目漱石의 활동기간인 明治 말부터 大正 초까지(1905~1916)의 시대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러일전쟁을 전후하여 서구에서 인도주의, 자연주의, 사회주의 등이 일본에 유입되면서 일본 군국주의에 저항하는 세력이 늘어났다. 특히 입센의 『인형의 집』¹³⁾ 등 여성문제를 다룬 문학작품이 번역·소개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은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었다.¹⁴⁾ 당시 일본에서는 입센을 통해 여성문제를 돌아보게 되었고, 입센의 여성해방 사상에 힘을 얻어 이후 여성해방운동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이 시대는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변혁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관심을 가지게 된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三四郎』 작품 안에서도 여자를 묘사할 때 「イブセンの女の様な所がある」라며 美禰子の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

13)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리크 입센(Henrik Ibsen:1828~1906)의 희곡으로 1879년 발표되었다. 『인형의 집』은 가정주부이자 변호사의 아내였던 노라는 전형적인 현모양처였지만 남편이 비겁한 사람임을 알고, 또 인형의 모습으로 살았던 자신을 깨닫게 되어 인형이 아닌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집을 뛰쳐나온다는 설정이다. 당시 연극이 공연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반발을 받았지만, 남성들에게 매여있던 여성이 자신의 삶을 찾아 스스로 해방시킨다는 내용은 페미니즘의 교본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다. 이 작품이 세상에 나오자 노라는 신여성의 대명사가 되었고 여성해방 운동이 각처에 전해지기 시작했다.

14) 유상희, 『나쓰메소세키 연구』, 보고사, 2001.4, p.209

「あの女は落ち付いて居て、乱暴だ」と広田が云った。

「ええ乱暴です。イブセンの女のような所がある」

「イブセンの女は露骨だが、あの女は心が乱暴だ。尤も乱暴と云っても、普通の乱暴とは意味が違うが」(中略)

「イブセンの人物に似ているのは里見の御嬢さん許じゃない。今の一般の女性はみんな似ている。女性ばかりじゃない。苟くも新しい空気に触れた男はみんなイブセンの人物に似た所がある。ただ男も女もイブセンの様に自由行動を取らないだけだ。腹のなかでは大抵かぶれている」

「ぼくはあんまり、かぶれていない」

「いないと自ら欺いているのだ。——どんな社会だって陥欠のない社会はあるまい」

「それは無いだろう」

「無いとすれば、その中に生息している動物は何処かに不足を感じる訳だ。イブセンの人物は、現代社会制度の陥欠を尤も明らかに感じたものだ。吾々も追々ああ成って来る」(pp.73-74)

이것은 美禰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 러일전쟁 후 새로운 공기의 흐름에 남자나 여자 모두가 「입센의 인물」과 닮은 데가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입센의 영향은 여성뿐 아니라 근대 젊은이들에게 큰 방향을 불러일으켰다.

明治期の 계몽가로 알려진 福沢諭吉¹⁵⁾는 저서 『学問のすすめ』에서 새로운 일본이 창출해야 할 인간상으로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독립된 인격이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明治期の 여성교육은 ‘독립된 인격’으로서의 여성이 아닌 賢母良妻가 유일한 목적이었다. 결혼해도 부인으로서 남편에 대한 복종과 「家」라는 협소한 세계에 안주하는 여성의 삶이 강요되었던 것이다.¹⁶⁾ 하지만 이후 1910년대는 여성에게 있어 급격한 변혁의 시기였다. 高

15) 福沢諭吉-일본의 계몽가이자 교육가로 江戸에 네덜란드 어학교인 蘭学塾을 열고, 학생들에게 학문을 권장하기 위해 1871년 『学問のすすめ』를 썼다.

16) 이지숙, 「1910년대 일본의 근대화와 신여성문학 -『靑鞆』을 중심으로-」, 『신여성들

等女学校가 급속히 보급되었고 사회주의사상의 주장, 賢母良妻주의 비판, 노동쟁의 등에 의한 여성의 자아주장의 고조는 경제적 자립을 촉진시켜 신시대 여성의 직업으로 여배우, 중학교 교사, 영문속기사 등을 배출시켰다. 1910년대 일본에는 『靑鞆』¹⁷⁾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의 자각과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新しい女>가 있었다. 平塚らいてう¹⁸⁾를 비롯한 이러한 여성들은 여학교 교육을 받고 그녀들의 모든 생활을 속박하는 규범인 현모양처주의를 비판하며 그 족쇄로부터 탈출하고자 하였다.

『三四郎』는 이러한 변혁의 시기에 쓰여진 작품으로 『三四郎』에는 그 시대의 여성 美禰子の 모습이 나온다. 美禰子は 서양적인 생활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성으로 근대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 登尾 豊는 美禰子の 모습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美禰子は二十三歳の三四郎と同年くらい、東京に自宅がある。新しい教育を受け、クリスチャンであるところを見ると、ミッション系の女学校を出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両親・長兄はすでになく、恭助という兄と一緒に暮している。職業はもっていないが、名刺をもち、自分名義の預金口座をもっていて、兄に相談することなく三四郎に三十円という金額を貸すことができる。裕福なうえに独立した個人として行動できる自由を得ている。顔を上げて歩き、うつむきかげんに歩いた普通の日本女性とは異なる。

広田先生が美禰子を評して<あの女は自分の行きたい所でなくつちや行きつこない。勧めたつて駄目だ>と言い、原口がそれを承けて<全く西洋流だね>と言う。家長の言いなりに結婚せざるをえない女性の多かった時代に彼女は、近代的な生き

만나다- 근대초기 한·중·일 여성소설읽기』, 새미, 2004.5, pp.73-74

17) 발기인은 주재자 平塚らいてう를 비롯하여 保持研子, 持野初子, 木内錠子, 物集和子 등 총 다섯 명이며 이 가운데 物集를 제외하고 모두 日本女子大学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 잡지명 『靑鞆』이라는 말은 영어 blue stocking의 번역어로서 18세기 중반에 영국에서 일어난 자유결혼, 여성해방운동을 뜻한다.

18) 平塚らいて우는 1886년에 태어나 日本女子大学을 졸업했다. 1908년 夏目漱石의 애제자였던 森田草平와의 煤煙事件으로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1911년에는 청담사를 일으켜 잡지 『靑鞆』를 발간하였다. 平塚らいて우는 1918년 与謝野晶子와 모성보호논쟁을 주도하였으며 1920년에는 신부인협회를 결성하여 부인참정권에도 큰 활약을 보였다.

かたを認められている。

要するに新しい女として設定されているのが美禰子である。¹⁹⁾

유복한 그녀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 얼굴을 들고 걷는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고 걷는 보통의 일본여성과는 다르다. 가장이 말하대로 결혼하지 않을 수 없는 여성이 많았던 시대에 그녀는 근대적인 생활방식을 받아들인 신여성으로서 설정되어져 있다. 독립된 자유를 누리고 있는 美禰子は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野々宮와도 자유롭게 교제하고 있다.

또한 平岡敏夫도 「美禰子は日露戦争後の新しい『文明』の女である」²⁰⁾라고 하며 새로운 문명의 여자라고 말하고 있다. 漱石은 美禰子를 明治시대 신여성으로서 서양문물을 받아들여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漱石은 朝日新聞社에 입사하고 난 이후 독자의 범위를 문단이라고 하는 좁은 세계에 한정시키지 않고 신문을 읽는 좀 더 넓은 독자층을 의식하며 작품을 써 나갔다. 때문에 그의 작품에는 러일전쟁 이후 일본의 시대상이 정밀하게 묘사되어 있어 독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漱石은 1908년부터 10년까지 『三四郎』, 『それから』, 『門』으로 이어진 전기3부작을 통해서 사랑을 둘러싼 인간심리의 갈등을 깊이 있게 추구하려 했다.²¹⁾ 『三四郎』에서는 사랑을 둘러싼 인간심리의 모습을 美禰子라는 여성을 통해 그려냈다고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서양의 근대문화가 급격하게 흘러들어오는 시대 속에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펴나가는 새로

19) 登尾 豊, 「『三四郎』の美禰子—裏の主人公—」, 『國文學 解釈と教材の研究』, 學燈社, 1997.5, p.113

20) 平岡敏夫, 「三四郎」, 『漱石序説』, 塙書房, 1976.10, p.201

21) 김상규, 『신편 일본문학사』, 도서출판 책사랑, 2007.2, p.220

운 문명의 여자 美禰子の 심리가 어떻게 변화되어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자 한다.



2. 美禰子の 心境 変化의 過程

美禰子は 근대 여성의 모습을 떠 올리게 하는 여성으로서 서양의 영향을 받아 영어를 잘하고 바이올린을 배우며 자신의 명함과 통장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다. 또한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은 그녀의 신여성의 독립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신여성으로 설정되어 있는 美禰子は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도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 美禰子は 野々宮와 三四郎에게서 느끼지 못한 신뢰를 다른 남자에게서 느끼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된다.

美禰子を 중점으로 野々宮와 三四郎, <立派な人>의 양상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묘사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들과의 관계로 인해 美禰子の 심경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2-1. 美禰子와 野々宮

美禰子와 野々宮는 예전부터 서로 아는 사이이며 사랑하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千種キムラ・スティーブン이 「二人は愛し合っているが、屈折した愛情表現しか出来ず、結局は傷つけ合ってしまうのである。」²²⁾라고 말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면서 굴절된 애정표현밖에 할 수 없고 결국은 서로 상처를 입히고 그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작품에서 묘사되는 美禰子와 野々宮의 모습을 통해 두 사람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千種キムラ・スティーブン, 「『三四郎』試論(続)―迷羊のつい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83.5, p.160

野々宮는 대학에서 연구를 하는 과학자로 그는 현실사회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연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僕は穴倉生活を遣っていれば済むのです。近頃の学問は非常な勢いで動いているので、少し油断すると、すぐ取り残されて仕舞う。人が見ると穴倉の中で冗談をしている様だが、是でも遣っている当人の頭の中は劇烈に働いているんですよ。電車より余程烈しく働いているかも知れない。」 (p.17)

野々宮의 관심은 대단한 기세로 움직이고 있는 학문에 대해 방심하지 않는 것이다. 자신의 머릿속은 학문에 대한 것으로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三四郎가 처음 野々宮를 만났을 때 받은 느낌도 현실세계와 교섭이 없는 것처럼 보이며 평생 동안 현실세계와 접촉할 생각이 없이 연구에만 빠져 있는 과학자의 모습으로만 보였다. 그런 그에게 좋아하는 美禰子が 있다. 美禰子에게 받은 편지를 포켓에 넣어 다니기도 하고 그녀에게 선물하려고 리본을 사기도 한다. 美禰子와 三四郎의 관계 이전에 美禰子와 野々宮의 관계가 먼저 형성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다.

野々宮君は、向うの小間物屋を指して、「あすこで一寸買物をしますからね」と云って、ちりんちりと鳴る間を駆抜けた。三四郎も食っ付いて、向うへ渡った。野々宮君は早速店へ這入った。表に待っていた三四郎が、気が付いて見ると、店先の硝子張の棚に櫛だの花簪だのが列べてある。三四郎は妙に思った。野々宮君が何を買っているのかしらと、不審を起して、店の中へはいって見ると、蟬の羽根の様なりボンをぶら下げて、「どうですか」と聞かれた。(p.18)

三四郎の頭の中に、女の結んでいたリボンの色が映った。其リボンの色も質も、慥かに野々宮君が兼安で買ったものと同じであると考え出した時、三四郎は急に足が重くなった。(p.35)

美禰子が 머리에 꽂고 있던 리본은 野々宮에게 선물 받은 것으로 이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연인관계임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千種キムラ・ステューブン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なお漱石は、この時三四郎もリボンを「鮎の御礼に御光さんに送つてやろうかと思つた」が御光さんが「鮎の御礼と思はず、屹度何だかんだと手前勝手の理屈を附けるに違ひないと考へたから已めにした」と附記し、読者に野々宮と美禰子が特別な仲だと判るよう配慮している事にも注目する必要がある。²³⁾

이와 같이 작자 漱石는 독자에게 野々宮와 美禰子が 특별한 사이라고 추측하도록 배려하고 있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논하고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三四郎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계속 의식하게 만든다. 広田先生の 이사 집에서 세 사람이 다 같이 만난 장면에서 보면 「三四郎は野々宮君の態度と視線とを注意せずには居られなかった。」라고 하며 三四郎의 시선은 野々宮를 향하고 있고 이후에도 계속 野々宮와 美禰子の 관계를 주의해서 지켜본다.

三四郎가 의식하는 모습은 美禰子が 자신에게 보낸 엽서의 글씨체와 野々宮의 주머니에서 보았던 편지봉투 글씨체와 비교하는 장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端書が来ている。「明日午後一時頃から菊人形を見に参りますから、広田先生のうち迄入らっしゃい。美禰子」其字が、野々宮さんの隠袋から半分食み出していた封筒の上書に似ているので、三四郎は何遍も読み直して見た。(p.59)

23) 千種キムラ・ステューブン, 「『三四郎』試論(続)一迷羊のついて」,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83.5, p.159

三四郎는 국화인형전을 보러가는 약속시간을 적어서 엽서로 보낸 美禰子の 글씨체와 예전에 野々宮 주머니에서 보았던 봉투의 글씨체가 비슷한 것에 신경쓰고 있다. 野々宮에게 편지를 보내고 美禰子에게 머리핀을 선물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연인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美禰子は 野々宮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있다. 그래서 먼저 그에게 다가가고 그의 부탁을 망설임 없이 들어주기도 한다.

「先生、折角大久保へ越したが、又此方の方へ出なければならぬ様になりそうです」

「何故」

「妹が学校へ行き帰りに、戸山の原を通るのが厭だといひ出しましてね。それに僕が夜実験をやるものですから、遅く迄待っているのが淋しくて不可ないんだそうです。尤も今のうちは母が居るから構いませんが、もう少しして、母が国へ帰ると、あとは下女丈になるものですからね。(中略)」 「どうです里見さん、あなたの所へでも食客に置いて呉れませんか」と美禰子の顔を見た。

「何時でも置いて上げますわ」 (p.55)

野々宮가 美禰子에게 여동생을 식객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물으니 망설임 없이 언제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한다. 스스로없이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인 행동을 보이는 美禰子は 여동생 よし子が 국화인형전을 보고 싶어 한다는 野々宮의 이야기를 놓치지 않고 자신도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고백하며 먼저 野々宮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野々宮는 그녀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인다. 또한 野々宮가 広田先生の 이사집에 방문하였다가 돌아가려고 마당을 나서자 美禰子は 뒤를 쫓아가서 두 사람만의 대화를 하기도 한다.

野々宮さんが庭から出て行った。其影が折戸の外へ隠れると、美禰子は急に思い

出した様に「そうそう」と云いながら、庭先に脱いであった下駄を穿いて、野々宮の後を追掛けた。表で何か話している。三四郎は黙って座っていた。(p.56)

대문 밖으로 나가서 둘 만의 대화를 하는 모습은 美禰子와 野々宮의 깊은 관계를 추측할 수 있다. 두 사람의 관계는 三四郎과 野々宮의 여동생인 よし子와의 대화에서도 확인이 된다.

「野々宮さんは元から里見さんと御懇意なんですか」

「ええ。御友達なの」

男と女の友達という意味かしらと思ったが、何だか可笑しい。けれども三四郎はそれ以上を聞き徳なかった。(中略)

「此方へも来ますか」(中略)

「美禰子さん？」(中略)

「入らっしゃいますわ」と漸く三四郎に返事をした。

「度々？」

「ええ度々」とよし子は依然として画紙に向かっている。(pp.57-58)

三四郎가 野々宮의 집을 찾아가서 よし子와 대화를 나누면서 野々宮와 美禰子が 친한 사이임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두 사람은 자주 왕래를 하고 있는 특별한 사이임을 알게 된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국화 인형전을 보러가는 날에 공중비행기²⁴⁾에 관한 논쟁을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두 사람의 관계를 예고하고 있다.

24) 오늘날의 비행기뿐만 아니라, 비행선, 글라이더를 포함한 공중비상을 위한 기계를 말한다. 라이트 형제가 인류 최초로 동력비행기에 성공한 것은 1903년으로, 그 이후 비행기는 세계의 화제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1909년 12월 相原포병대위가 시도한 東京 上野不忍池 옆에서 자동차가 이끄는 글라이더 시험비행이 1000m를 날다 추락한 후, 동력비행기는 1910년 12월 代々木 연병장에서 행한 日野, 徳川 두 대위의 실험비행이 최초이다.

話は野々宮と美禰子の間に起こりつつある。

「そんな事をすれば、地面の上へ落ちて死ぬ許りだ」此は男の声である。

「死んでも、其方が可いと思います」是は女の答である。

「尤もそんな無謀な人間は、高い所から落ちて死ぬ丈の価値は充分ある」

「残酷な事を仰しゃる」 (中略) しばらくすると、美禰子が、

「野々宮さんは、理学者だから、なおそんな事仰しゃるんでしょう」と云い出した。話しの続きらしい。

「なに理学を遣らなくっても同じ事です。高く飛ぼうと云うには、飛べる丈の装置を考え上でなければ出来ないに極っている。頭の方が先に要るに違いないじゃありませんか」

「そんなに高く飛びたくない人は、それで我慢するかも知れません」

「我慢しなければ、死ぬ許ですもの」

「そうすると安全で地面の上に立っているのが一番好い事になりますね。何だか詰らない様だ」

野々宮さんは返事を已めて、広田先生の方を向いたが、

「女には詩人が多いですね」と笑いながら云った。(pp.60-61)

죽더라도 높이 날고 싶다는 이상적인 美禰子와, 그런 일을 하면 땅 위에 떨어져 죽을 따름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野々宮의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그리고 野々宮는 「女には詩人が多いですね」라며 美禰子を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높이 날려고 할 때는 날 수 있을 만큼의 장치를 고안한 뒤가 아니면 할 수가 없고, 참지 않으면 죽을 뿐 이라고 말한다. 결혼에 있어서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는 野々宮의 모습이다. 이에 대해 美禰子は 높이 날고 싶지 않은 사람은 그냥 참을지도 모른다고 하며 그렇다면 안전하게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제일 좋은 일이 되겠다며 웬지 시시한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 않기에 그냥 참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두 사람은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이후 그들의 관계는 어긋나 버

린다. 이 어긋남은 국화 인형전에 도착한 그녀가 野々宮에 대한 서운함에 국화 인형전을 보지도 않고 함께 온 일행들을 뒤로한 채 혼자서 밖으로 나와 버리는 것으로 이어진다.

美禰子は其間に立って振り返った。首を延ばして、野々宮のいる方を見た。野々宮は右の手を竹の手欄から出して、菊の根を指しながら、何か熱心に説明している。美禰子は又向こうをむいた。見物に押されて、さっさと出口の方へ行く。三四郎は群集を押し分けながら、三人を棄てて、美禰子のあとを追って行った。(中略)

「どうかしましたか」と思わず言った。美禰子はまだ何とも答えない。黒い眼を佐も物憂そうに三四郎の額の上に据えた。其時三四郎は美禰子の二重脣が不可思議なある意味を認めた。其意味のうちには、霊の疲れがある。肉の弛みがある。苦痛に近き訴えがある。(p.63)

공중비행기 논쟁이 있은 후에도 美禰子は 계속 野々宮를 바라보고 있지만 그의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 美禰子は 영혼의 피로, 육신의 나른함, 고통에 가까운 호소를 느끼며 본격적인 방황과 野々宮에 대한 단념이 시작된다. 美禰子は 자신을 쫓아서 나온 三四郎와 함께 있으면서 시선은 멀리 하늘을 향해 있다. 그리고 「空の色が濁りました」라고 말한다. 지금 자신의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름을 쳐다보며 「動く様で、なかなか動きませんね」라고 말한다. 움직이지 않는 野々宮의 마음을 구름에 비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三四郎는 「広田先生や野々宮さんは嘸後で僕等を探したでしょう」라며 아마 나중에 우리를 찾았겠지요라고 말하지만 美禰子は 「なに大丈夫よ。大きな迷子ですもの」^{まいご}라며 다 큰 미아라고 대답하고 더 냉담하게 「責任を逃れたがる人だから、丁度好いでしょう」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랑에 대해서 즉 결혼에 대해서 野々宮는 책임을 회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 <責任を逃れたがる人>로 보이는 것이다. 野々宮와 美禰子は 연인관계이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野々宮에게 관심사는 오직 학문뿐이다. 三四郎와 よし子の 대화에서도 보면 「研究心の強い学問好きの人は、万事を研究する気で見えるから、情愛が薄くなる訳である」라며 よし子は 자신의 오빠 野々宮를 만사를 연구하듯이 보기 때문에 인정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문이 아닌 다른 일에는 무심함을 표현하고 있다. 이 부분은 三四郎와 広田先生の 대화에서도 언급되고 있다.

「野々宮さんは下宿なすったそうですね」

「ええ、下宿したそうです」

「家を持ったものが、又下宿をしたら不便だろうと思いますが、野々宮は能く……」

「ええ、そんな事には一向無頓着な方でね。あの服装を見ても分かる。家庭的な人じゃない。其代り学問にかけると非常に神経質だ」

「当分ああ遣って御出での積なんでしょうか」

「分らない。又突然家を持つかも知れない」 (p.87)

野々宮는 집을 가졌다가 다시 하숙을 하게 된다. 이런 모습은 아직 결혼에 대해 생각이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문에 있어서는 아주 예민하지만 가정적이지 않은 野々宮의 모습이다. 자신의 현실적인 면을 보았을 때 아직 결혼이 무리라고 생각한 野々宮는 공중비행기의 비유에서처럼 무모한 인간처럼 행동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野々宮이지만 그를 존경하는 마음은 美禰子에게 여전히 남아있다. 운동회가 있던 날 三四郎가 野々宮를 질투하며 비꼬는

말에서도 美禰子は 野々宮를 편들고 있다.

「野々宮さんと云えば、今日は大変働いていますね」

「ええ、珍しくフロックコートを御着になって——随分御迷惑でしょう。朝から晩迄ですから」

「だって大分得意の様じゃ在りませんか」

「誰が、野々宮さんが。——あなたも随分ね」

「何故ですか」

「だって、真坂運動会の計測係りになって得意になる様な方でもないでしょう」

(p.83)

野々宮는 운동회 계측원이 되었다고 득의양양할 사람이 아니더라는 것이다. 그는 그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与次郎가 野々宮에 대해 말한 부분에서도 野々宮가 존경받을 인물임을 알 수가 있다.

其時与次郎が話した。——野々宮君は自分の寄寓している広田先生の、元の弟子でよく来る。大変な学問好きで、研究も大分ある。其道の人なら、西洋人でもみんな野々宮君の名を知っている。(p.26)

물리학자인 野々宮는 그 분야의 사람이라면 서양인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운동회 계측원이 되었다고 득의양양하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野々宮를 질투하는 三四郎의 눈에만 그렇게 비쳐질 뿐이다. 美禰子は 계속해서 野々宮를 칭찬한다.

宗八さんの様な方は、我々の考えじゃ分かりませんよ。ずっと高い所に居て、大きな事を考えて居らっしゃるんだから」と大いに野々宮さんを誉め出した。(p.84)

野々宮는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 할 수가 없^고 훨씬 높은 곳에 있으면서 커다란 일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며, 외국에까지 알려질 정도의 일을 하는 사람이 보통 학생처럼 하숙집에 들어간 것도 野々宮가 훌륭하기 때문이며 하숙집이 누추하면 누추할수록 존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美禰子は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 존경은 野々宮와 美禰子の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끝나고 만다. 그것은 美禰子를 향한 野々宮의 확실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野々宮에게 확신과 신뢰를 얻지 못한 美禰子は 다른 사람에게로 마음이 변화되어 간 것이라 할 수 있다.

野々宮와 美禰子が 다시 만나게 되는 장면은 美禰子が 三四郎와 함께 전람회에 갔을 때이다. 그 때 野々宮의 반응을 보도록 하자.

野々宮は三四郎に向って、「妙な連と来ましたね」と云った。三四郎が何か答えようとするうちに、美禰子が、「似合うでしょう」と云った。野々宮さんは何とも云わなかった。くると後ろを向いた。(p.104)

묘한 동행이라고 말하며 野々宮는 美禰子와 함께 있는 三四郎를 보고 질투하며 기분이 상해진다. 자신만을 바라보던 美禰子에게 다른 상대가 생긴 것을 野々宮는 느낀 것이다. 그런 그에게 美禰子は 「似合うでしょう」라고 말한다. 그녀의 행동은 野々宮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서버린다.

美禰子は呼ばれた原口よりは、原口より遠くの野々宮を見た。見るや否や、二、三歩後戻りをして三四郎の傍へ来た。人に目立ぬ位に、自分の口を三四郎の耳へ近寄せた。そうして何か私語いた。三四郎には何を云ったのか、少しも分からない。
(中略)

「さっき何を云ったんですか」 (中略)

「野々宮さん。ね、ね」

「野々宮さん……」

「解ったでしょう」

美禰子の意味は、大波のくずれるごとく一度に三四郎の胸を浸した。

「野々宮さんを愚弄したのですか」

「何で？」（中略）

「あなたを愚弄したんじゃないのよ」（pp.104-106）

野々宮의 앞에서 三四郎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그녀의 행동은 三四郎와 친밀한 관계임을 野々宮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식적인 행동이며 이는 野々宮에 대한 마음이 다른 이에게로 옮겨갔다는 증거로 이별의 통보라고 볼 수 있다. 野々宮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고, 자신보다 7살이나 어린 三四郎에 대해 별다른 경계심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美禰子は 野々宮도 三四郎도 아닌 전혀 예측하지 못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버린다.

美禰子が 결혼을 한 이후 그녀의 초상화가 전시된 전시실에 広田先生, 三四郎, 与次郎와 함께 온 野々宮는 그림을 보고 무덤덤하고 태연한 듯 「色の出し方が中々洒落ていますね。寧ろ意気な画だ」라며 멋진 그림이라고 평하고 있지만 뒤늦게 美禰子를 향한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다.

野々宮さんは目録へ記号を付ける為に、隠袋へ手を入れて鉛筆を探した。鉛筆がなくて、一枚の活版刷りの端書が出て来た。見ると、美禰子の結婚披露の招待状であった。披露はとうに済んだ。野々宮さんは広田先生と一所にフロックコートで出席した。三四郎は帰京の当日此招待状を下宿の机の上に見た。時期は既に過ぎていた。

野々宮さんは、招待状を引き千切って床の上に棄てた。やがて先生と共に外の画の評に取り掛る。（p.152）

野々宮는 広田先生와 함께 美禰子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하고 의연한 듯

행동했었지만 이후 전시실에서 그녀의 초상화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초대장을 찢어 마룻바닥에 버리는 모습을 보인다. 美禰子を 떠나보낸 자신의 모습에 후회하며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또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른 그림에 대한 평을 하기 시작한다.

美禰子を 향한 野々宮의 확실하지 않은 행동들은 끝내 美禰子와 연결되지 않고 끝나버린다. 野々宮는 여동생 よし子の 「自分の兄は理学者だものだから、自分を研究して不可ない。自分を研究すればする程、自分を可愛がる度は減るのだから、妹に対して不親切になる。」라는 말처럼 물리학자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연구하였으며,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판단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며 사랑하는 美禰子を 붙잡지 못하였다.

野々宮와 美禰子は 편지를 주고 받고 머리핀을 선물하며 서로의 집을 자주 왕래하였다. 그리고 野々宮가 하숙을 하게 되었을 때 여동생 よし子を 美禰子에게 맡기는 부탁을 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다. 하지만 결혼에 있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野々宮의 모습에 신뢰를 느끼지 못한 美禰子は 방황을 하게 되고 그를 단념하게 된다. 美禰子에게 野々宮는 <責任を逃れたがる人>이었던 것이다.

2-2. 美禰子와 三四郎

三四郎와의 사랑은 美禰子 안에 확실히 있었다. 三好行雄의 「三四郎への愛は美禰子のなかに確實にあつた。しかし、その愛は自意識の拡張をとまなうことで三四郎を傷つけ、流血を強いる。」²⁵⁾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 사랑은 자의식의 확장을 동반한 것으로 三四郎를 상처입힌다. 그 상처는 美禰子의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었고 청춘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품 안에서 나타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자.

美禰子와 三四郎는 대학의 연못가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不図眼を上げると、左手の岡の上に女が二人立っている（中略）此時三四郎の受けた感じは只奇麗な色彩だと云う事であつた。けれども田舎者だから、此色彩がどういふ風に奇麗なのだか、口にも云えず、筆にも書けない。ただ白い方が看護婦だと思つた許である。三四郎は又見惚れていた。（pp.15-16）

여자를 보고 받은 인상을 입으로 말할 수 없고, 글로도 쓸 수 없는 그저 아름다운 색채라고 느낀 三四郎는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다. 美禰子는 첫 만남부터 三四郎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긴다. 三四郎는 계속해서 美禰子에게 관심을 갖는다. 三四郎의 시선을 느낀 美禰子의 모습은 어떠한가?

それで三四郎から一間許の所へ来てひよいと留った。（中略）

「そう。実は生っていないの」と云いながら、仰向いた顔を元へ戻す、其拍子に三四郎を一目見た。三四郎は慥に女の黒眼の動く刹那を意識した。其時色彩の感じは悉く消えて、何とも云えぬ或物に出逢った。其或物は汽車の女に「あなたは度胸の

25) 三好行雄, 「三四郎 (三)」,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66.3, p.154

ない方ですね」と云われた時の感じと何処か似通っている。三四郎は恐ろしくなった。

二人の女は三四郎の前を通り過ぎる。若い方が今迄嗅いで居た白い花を三四郎の前へ落として行った。三四郎は二人の後姿を凝と見詰めて居た。(p.16)

三四郎를 힐끗 보는 것, 검은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 그리고三四郎앞에 자신이 향기를 맡았던 꽃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녀는三四郎에게 호감을 보이고 더욱더 관심을 끄는 행동을 하고 있다.三四郎는 여자의 검은 눈동자가 움직이는 찰나를 의식했다. 그 때三四郎는 말할 수 없는 무엇과 마주치며 기차에서 만난 여인²⁶⁾과 비슷한 느낌이 들어 두려워졌다고 한다. 말할 수 없는 무엇이 도대체 무엇일까? 기차에서 만난 여인에게 자신의 23년간 약점이 한꺼번에 노출된 듯한 기분이었듯이²⁷⁾美禰子에게도 자신의 약점이 들켰다는 느낌을 받는다. <度胸のない人>인三四郎의 모습은 고향의 어머니로부터 온 편지에서도 나타난다.

御前は子供の時から度胸がなくて不可ない。度胸の悪いのは大変な損で、試験の時などにはどの位困るか知れない。(中略)

三四郎は馬々しいと思った。けれども馬々しいうちに大いなる感謝を見出した。母は本当に親切なものであると、つくづく感心した。(p.93)

三四郎의 배짱이 없는 성격은 앞으로 그가美禰子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의 진전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三四郎과美禰子の青春의 사랑에 대한 고민, 방황이 전개되어 가고 있다.

26) 三四郎가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상경하는 기차에서 만난 여자로, 함께 동숙하게 되지만 그날 밤 아무 일 없이 헤어지면서三四郎는 여자로부터‘度胸のない方’라는 말을 듣게 된다.

27) 別れ際にあなたは度胸のない方だと云われた時には、喫驚した。二十三年の弱点が一度に露見した様な心持ちであった。(텍스트 p.8)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에도 美禰子の 얼굴색만 생각하며 「三四郎は、女の色は、どうしてもあれでなくっては駄目だと断定した」라고 하며 여자의 얼굴색은 아무래도 그래야 된다고 단정한다. 東京으로 상경하려고 탄 기차가 大阪, 京都에 가까워지는 동안 여자들의 피부색이 점차로 흰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고향이 멀어져가는 듯한 슬픔을 느꼈던 三四郎는 東京에 도착해서 美禰子를 만난 이후부터 고향에서 멀어졌다는 슬픔보다는 아름다운 여성이 있는 이곳을 기대하게 된다. 그리고 신학기가 시작되는 날 美禰子를 처음 만난 연못가에 찾아가서 그녀를 다시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 후 野々宮의 부탁으로 野々宮의 여동생 よし子が 입원한 병원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병원 복도에서 다시 美禰子를 만나게 된다.

挨拶をして、部屋を出て、玄関正面へ来て、向を見ると、長い廊下の果はが四角に切れて、ぱっと明るく、表の緑が映る上がり口に、池の女が立っている。はっと驚いた三四郎の足は、早速の歩調に狂が出来た。其時透明な空気の画布の中に暗く描かれた女の影は一步前へ動いた。三四郎も誘われた様に前へ動いた。二人は一筋道の廊下の何処かで擦れ違わねばならぬ運命を以て互いに近付いて来た。

(中略) 三四郎は其間に女の姿勢と服装を頭のなかへ入れた。 (pp.33-34)

투명한 공기의 캔버스 안에 어둡게 그려진 여자의 모습을 머릿속에 새기는 장면은 두 사람의 만남이 그저 스쳐지나가는 것이 아닌 꼭 만나야 하는 인연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与次郎의 부탁으로 広田先生の 이사하는 집에 도와주러 가서 이뤄진다.

そうして思いも寄らぬ池の女が庭の中にあらわれた。

二方は生垣で仕切つてある。四角な庭は十坪に足りない。三四郎は此狭い囲いの中に立った池の女を見るや否や、忽ち悟った。——花は必ず剪つて、瓶裏に眺むべきものである。(p.46)

네모난 정원에서 美禰子를 바라보며 꽃은 반드시 꺾어서 꽃병 속에 넣고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三四郎의 모습은 투명한 공기의 캔버스 안에 그려진 여자의 모습과, 그리고 작품 마지막에 美禰子の 초상화를 바라보는 모습과 연관되어 진다. 그림 속의 여자로 남겨지는 美禰子の 모습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만남은 국화 인형전을 가기 위해서 広田先生, 野々宮, よし子와 함께 만나게 된다. 그토록 오고 싶어 했던 곳이지만, 美禰子は 野々宮와 공중비행기에 관련된 논쟁 이후 기분이 좋지 않다. 그래서 그녀는 국화 인형전에서 서둘러 출구 쪽으로 나가버린다. 이때부터 美禰子の 심경 변화는 시작이 된다.

美禰子は又向をむいた。見物に押されて、さっさと出口の方へ行く。三四郎は群集を押し分けながら、三人を棄てて、美禰子の後を追って行った。(p.63)

三四郎의 시선은 美禰子를 향해 있다. 그래서 함께 온 일행을 남겨두고 美禰子の 뒤를 쫓아가게 된다. 이 장면에서부터 美禰子は 野々宮에 대해 방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美禰子の 방황하는 모습은 다음 지문에서 알 수가 있다.

まいご
「迷子」

女は三四郎を見た儘で此一言を繰返した。三四郎は答えなかった。

まいご
「迷子の英訳を知って入らして」

三四郎は知るとも、知らぬとも云い得えぬ程に、此問を予期していなかった。

「教えて上げましょうか」

「ええ」

ストレイ・シープ
「迷える子28)——解って?」 (pp.66-67)

美禰子は 자신을 다 큰 미아라고 말하고 「迷子」라는 한마디를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三四郎에게 미아의 영어번역을 알고 있냐고 묻고 가르쳐 준다고 하며 「迷える子」라고 말한다. 美禰子は 「迷える子」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였을까?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하자.

ストレイ・シープ
迷える子という言葉は解った様でもある。又解らない様でもある。解る解らないは此言葉の意味よりも、寧ろ此言葉を使った女の意味である。三四郎はいたずらに女の顔を眺めて黙っていた。すると女は急に真面目になった。
「私そんなに生意気に見えますか」

其調子には弁解の心持ちがある。三四郎は意外の感に打たれた。今迄は霧の中にいた。霧が晴れば好いと思っていた。此言葉で霧が晴れた。明瞭な女が出て来た。晴れたのが恨めしい気がする。(p.67)

자신에 대한 野々宮의 무관심에 그녀는 괴로워하며 방황하는 모습을 보인다. 三四郎는 美禰子の 「私そんなに生意気に見えますか」 이 한마디로 안개 속에 있는 그녀가 걷히고 분명한 여자가 드러났다고 하고 있다. 이

28) 스트레이 쉽(stray sheep)은, 성경 신약성서 마태복음 18장 12절-14절에서 목자에게 있어서 길 잃고 헤매는 한 마리의 양과 그렇지 않은 아흔아홉 마리 양의 비유에서 나온 말이다. 크리스찬인 美禰子が 迷子を 성서식의 영어로 말하고 있다.

순간 三四郎는 野々宮를 향한 美禰子の 마음을 읽고 서로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 美禰子は 野々宮에게 자신의 모습이 건방지게 보이지는 않을까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美禰子の 방황은 三四郎에게 자연스럽게 두 손을 내미는 행동으로 이어진다.

三四郎は此方側から手を出した。

「御捕まりなさい」

「いえ大丈夫」と女は笑っている。手を出している間は、調子を取る丈で渡らない。

三四郎は手を引込めた。すると美禰子は石の上にある右の足に、身体の重みを託して、左の足でひらりと此方側へ渡った。あまりに下駄を汚すまいと念を入れ過ぎたため、力が余って、腰が浮いた。のめりそうに胸が前へ出る。其勢で美禰子の両手が三四郎の両腕の上へ落ちた。

ストレイシープ

「迷える子」と美禰子が口の内 で云った。三四郎は其呼吸を感じる事が出来た。

(p.68)

美禰子は 진흙탕을 건널 때 손을 내미는 三四郎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혼자 건너려 하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두 손을 三四郎의 양 어깨로 떨어뜨리며 의지하게 된다. 「迷える子」의 길 잃은 양 美禰子の 마음은 자연스럽게 三四郎에게 옮겨간 것이다. 하지만 三四郎는 그 마음이 자신에게 옮겨오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며칠 후 美禰子에게 그림엽서를 받은 三四郎는 양 두 마리의 그림 중 한 마리를 자신을 빗대어 준 것에 기쁘게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ストレイシープ

下宿へ帰って、湯に入って、好い心持ちになって上がって見ると、机の上に絵端書がある。小川を描いて、草をもじゃもじゃ生やして、其縁に羊を二匹寝かして、其向う側に大きな男が洋杖を持って立っている所を写したものである。(中略)

表は三四郎の宛名の下に、迷える子と小さく書いた許である。三四郎は迷える子の何者かをすぐ悟った。のみならず、端書の裏に、迷える子を二匹書いて、其一匹を暗に自分に見立てて呉れたのを甚だ嬉しく思った。迷える子のなかには、美禰子のみではない、自分もとより這入っていたのである。それが美禰子の思わくであったと見える。
ストレイ・シープ
美禰子の使った stray sheepの意味が是で漸く判然した。(p.71)

三四郎는 단순히 국화 인형전에서 두 사람이 일행과 따로 떨어져 나와서 함께 있었다는 것을 길 잃은 양 두 마리로 해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는다. 엽서 뒷면에 길 잃은 두 마리 양이 美禰子와 함께 자신을 나타내고 있음이 기쁘기만 하다.

이후 다섯 번째 만남은 대학의 운동회에서이다. 三四郎는 경기를 보러 가는 것보다 美禰子를 만나기 위해 운동회장으로 간다. 친구 与次郎가 운동회는 경기보다 여자쪽을 보러 갈 가치가 있다고 말해서 그 곳에 가면 美禰子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간 것이다. 그리고 美禰子가 있는 곳을 찾는다. 마침내 美禰子를 찾게 되지만 三四郎의 시선에는 美禰子와 함께 野々宮가 보인다.

美禰子は立った。野々宮さんの所迄歩いて行く。柵の向うと此方で話を始めた様に見える。美禰子は急に振り返った。嬉しそうな笑いに充ちた顔である。三四郎は遠くから一生懸命に二人を見守っていた。すると、よし子が立った。又柵の側へ寄って行く。二人が三人になった。(中略) 運動会が少し癪に障っている。(pp.80-81)

三四郎는 운동회 때문이 아니라 野々宮와 함께 있으면서 기쁜 듯한 웃음을 짓고 있는 美禰子의 얼굴을 보고 기분이 언짢아진다. 얼마 전 野々宮와의 관계로 고통스러워하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윽고 三四郎는 운동회장을 나가버린다.

運動会は各自勝手に開くべきものである。人に見せべきものではない。あんなものを熱心に見物する女は悉く間違っていると迄思い込んで、会場を抜け出して、裏の築山の所迄来た。(p.80)

운동회장을 빠져나온 三四郎의 모습은 국화 인형전을 나와 방황하는 美禰子の 모습과 비슷하다. 이후 よし子와 美禰子도 운동회장을 빠져나오고 三四郎와 우연히 마주치게 된다. 왜 경기를 보지 않냐는 질문에 三四郎는 재미가 없어서 그만두고 왔다고 말하고 よし子와 美禰子에게 그쪽이야말로 왜 나왔느냐고 묻게 된다.

三四郎は、
「夫より、あなた方こそ何故出て来たんです。大変熱心に見て居たじゃありませんか」と当てた様な当てない様な事を大きな声で云った。美禰子は此時始めて、少し笑った。三四郎には其笑いの意味がよく分らない。(p.81)

美禰子は 자신을 열심히 지켜보고 있었던 三四郎의 마음을 알고 웃는다. 그렇지만 三四郎는 그 웃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よし子는 근처 병원 간호사에게 잠깐 인사를 하러 가게 되고 美禰子와 三四郎 두 사람만 남게 된다. 이전의 국화 인형전 때와 같이 다시 두 사람은 함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장면을 회상하게 된다.

「あの木を知っていらして」という。
「あれは椎」
女は笑い出した。
「よく覚えていらっしゃること」

「あの時の看護婦ですか、あなたが今訪ねようと云ったのは」
「ええ」
「よしさんの看護婦とは違うんですか」
「違います。是は椎——といった看護婦です」
今度は三四郎が笑い出した。
「彼処ですね。あなたがあの看護婦と一所に団扇を持って立っていたのは」 (p.82)

두 사람은 연못가에서 처음 만났던 날을 회상하며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 이 날은 三四郎에게도 美禰子에게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서로 대화가 오가던 중 三四郎은 자신이 운동회장에서 美禰子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음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된다.

「先刻あなたの所へ来て何か話していましたね」
「会場で？」
「ええ、運動会の柵の所で」と云ったが、三四郎は此問を急に撤回したくなった。女は「ええ」と云った儘男の顔をじっと見ている。少し下唇を反らして笑い掛けている。三四郎は堪らなくなった。何か云って紛らかそうとした時に、女は口を開いた。
「あなたは未だ此間の絵端書の返事を下さらないのね」
三四郎は迷付きながら「上げます」と答えた。女は呉れとも何とも云わない。
(p.83)

三四郎은 자신의 마음이 들켰음에 당황해하고 있다. 美禰子の 웃음은 자신에게 관심 있어 하며 좋아하는 三四郎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자신의 그림엽서에 답장 해주지 않았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三四郎은 美禰子の 마음이 자신에게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까? 직접 적극적으로 확인하면 좋았을 것인데 三四郎은 그러지 못하고 소극적

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직접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고 美禰子와 野々宮의 가까운 주변인물인 広田先生를 찾아가서 두 사람의 관계를 확인하려고 한다.

三四郎は近頃女に囚れた。恋人に囚われたのなら、却って面白いが、惚れられているんだか、馬鹿にされているんだか、怖がって可いんだか、蔑んで可いんだか、廃すべきだか、続けべきだか訳の分らない囚われ方である。三四郎は忌々敷くなった。そう言う時は広田さんに限る。(中略) 自分は美禰子に苦しんでいる。美禰子の傍に野々宮さんを置くと猶苦しんで来る。其野々宮さんに尤も近いものは此先生である。だから先生の所へ来ると、野々宮さんと美禰子との関係が自ら明瞭になってくるだろうと思う。これが明瞭になりさえすれば、自分の態度も判然きめる事が出来る。其癖二人の事を未だ曾て先生に聞いた事がない。今夜は一つ聞いて見ようかしらと、心を動かした。(p.87)

野々宮와 美禰子の 관계가 분명해지기만 하면 자신의 태도도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広田先生 집을 방문한다. 직접 상대방에게 부딪히지 않는 모습이다. 두 사람의 관계가 신경 쓰이지만 적극적인 태도는 보이지 않는다.

여섯 번 째 만남은 돈을 빌리러 美禰子の 집을 방문하면서 이루어진다. 三四郎는 与次郎에게 돈을 빌려주고 하숙비를 내지 못하여 곤란해 하고 있다. 그러자 与次郎는 美禰子에게 가서 돈을 빌릴 것을 권한다. 원래는 与次郎가 美禰子에게 빌리러 갔었지만 美禰子が 与次郎에게 돈을 주지 않고 三四郎에게 직접 건네주겠다고 해서 美禰子の 집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最後に嬉しい事を思い付いた。美禰子は与次郎に金を貸すと云った。けれども与次郎には渡さないと云った。じっさい与次郎は金銭の上に於ては、信用し悪い男かも知

れない。然し其意味で美禰子が渡さないのか、どうだか疑わしい。もし其意味でない
とすると、自分には甚だ頼母しい事になる。ただ金を貸して呉れる丈でも充分の好意
である。自分に逢って手渡しにしたいと云うのは――三四郎は此処迄己惚て見た
が、忽ち、「矢つ張り愚弄じゃないか」と考えだして、急に赤くなった。 (p.98)

三四郎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호의이며 자신을
만나서 직접 건네주고 싶다는 것에 기뻐하면서도 美禰子が 자신을 우롱 하
는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정확한 美禰子の 마음을 알 길이 없는
三四郎는 혼란스런 마음을 가진다. 그리고 美禰子の 태도를 보고 마지막
판단을 하려고 한다.

ことに明日逢う時に、どんな態度で、どんな事を云うだろうと其光景が十通りにも二十
通りにもなって、色々に出て来る。三四郎は本来から斯んな男である。用談があつて
人と会見の約束などをする時には、先方が何う出るだろうという事許り想像する。自分
が、こんな顔をして、こんな事を、こんな声で云って遣ろうなどとは決して考えない。し
かも会見が済むと後から屹度其方を考える。そして後悔する。 (中略) それはた
だ美禰子に接触する機会を利用して、先方の様子から、好い加減に最後の判決を
自分に与えて仕舞う丈である。明日の会見は此判決に欠くべからざる材料である。
(p.98)

三四郎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생각 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까만 상상한다. 나중에 후회 할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소극적인 성격은 美禰子와의 관계에서 발전 없이 끝나버리는
것에 영향을 준다.

다음은 美禰子の 집을 방문하여 응접실에서 기다리다가 그녀를 보는 장
면이다. 三四郎는 美禰子の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먼저 보게 된다.

三四郎が半ば感覚を失った眼を鏡の中に移すと、鏡の中に美禰子が何時の間にか立っている。下女が閉てたと思った戸が開いている。戸の後に掛けてある幕を片手で押し分けた美禰子の胸から上が明らかに写っている。美禰子は鏡の中で三四郎を見た。三四郎は鏡の中の美禰子を見た。美禰子はにこりと笑った。(p.99)

왜 三四郎의 시선은 거울 속의 美禰子에게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을까? 이것은 작품 마지막 그림 속 美禰子の 모습과 같다고 생각되어진다. 실제의 美禰子が 아닌 거울 속, 그림 속의 모습이 三四郎가 소유할 수 있는 美禰子の 모습인 것이다.

三四郎는 美禰子를 좋아하면서도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한다. 표현을 받고 싶었던 美禰子는 이런 三四郎에게 실망했을 것이다.

光線は厚い窓掛に遮られて、充分に這入らない。其上天氣は曇っている。三四郎は此間に美禰子の白い齒を見た。

「佐々木が来ました」

「何と云って入らっしゃいました」

「僕にあなたの所へ行けと云って来ました」

「左うでしょう。——夫で入らしたの」とわざわざ聞いた。

「ええ」と云って少し躊躇した。あとから「まあ、左うです」と答えた。女は全く齒を隠した。静かに席を立て、窓の所へ行つて、外面を眺め出した。(p.100)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먼저 다가오지 않는 三四郎에 대한 불만은 하얀 이를 보이는 웃는 얼굴의 모습에서 완전히 이를 감추는 냉담한 무표정으로 바뀌고 마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가서 밖을 내다보는 외면하는 모습으로 바뀐다. 그리고 三四郎에게 묘한 말을 던지게 된다.

「馬券で中るのは、人の心の中より六ずかしいじゃありませんか。あなたは索引の付いている人の心さえ中てて見様となさらない呑気な方だのに」 (p.100)

美禰子は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三四郎에게 덕은 색인이 붙어있는 마음조차 맞추어 보려고도 하지 않는 태평한 분이다라고 말하지만 三四郎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 뒤늦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지만 그 때 美禰子は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약속한 후였다.

美禰子は 三四郎에게 함께 단청회 주최 전람회에 가자고 권하고 전람회에 가서 野々宮를 우연히 만나게 된다. 그녀는 野々宮를 보자마자 三四郎 옆으로 와서 뭔가를 속삭인다. 그리고 野々宮쪽으로 가서 인사를 하며 「似合うでしょう」라고 말한다.

「妙な連と来れたね」と云った。三四郎が何か答えようとするうちに、美禰子が、
「似合うでしょう」と云った。野々宮さんは何とも云わなかった。くると後を向いた。
(p.104)

野々宮는 美禰子과 三四郎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획 뒤로 돌아 가 버린다. 美禰子の 행동은 野々宮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행동은 三四郎의 마음도 상하게 하였다. 三四郎에게는 美禰子の 태도를 보고 마지막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없는 혼돈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野々宮さんを愚弄したのですか」 (中略)
無言の壺二、三步動き出した。女は縋る様に付いて来た。
「あなたを愚弄したんじゃ無いのよ」 (中略)

「だって」と云いながら、寄って来た。「私、何故だか、ああ為たかったんですもの。野々宮さんに失礼する積じゃないんですけれども」
女は瞳を定めて、三四郎を見た。三四郎は其瞳の中に言葉よりも深き訴を認めた。――必竟あなたの為にした事じゃありませんかと、二重瞼の奥で訴えている。
(pp.105-107)

美禰子は 三四郎에게 마음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野々宮를 사랑하면서도 野々宮에게 충족 받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순수한 三四郎에게 마음이 끌렸다. 그리고 野々宮에게 있던 美禰子の 마음이 三四郎에게로 옮겨왔다. 三四郎는 말보다 깊은 호소력을 눈빛 속에서 감지했다고 한다. 하지만 三四郎는 자신에게 옮겨온 美禰子の 마음을 알지 못하고 野々宮에게 마음이 있었던 美禰子の 모습만 기억하고 있다.

일곱 번째 그들의 만남은 三四郎가 셔츠를 사러 양품점에 가면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美禰子は よし子와 함께 향수를 사러 왔다.

今度は三四郎の方が香水の相談を受けた。一向分らない。ヘリオトロープと書いてある罎を持って、好い加減に、是はどうですと云うと、美禰子が、「それに為ましよう」とすぐ極めた。三四郎は気の毒な位であった。(p.114)

三四郎의 셔츠를 두 여성이 골라주게 되고 三四郎는 향수 사는 걸 도와주게 된다. 그리고 美禰子は 향수에 대해 전혀 모르는 三四郎가 권한 헬리오트로프(heliotrope)²⁹⁾ 향수를 사게 된다. 본인이 사용하는 향수가 있음에

29) 지치과에 속하는 남미 원산의 식물로 초콜릿이나 바닐라 향에 가까운 향기가 매혹적인 허브이다. 꽃은 5월에서 9월에 자주색 또는 보라색 꽃이 줄기 끝에 무리지어 아름답게 핀다. 피며 독특한 향기가 있다. 꽃은 작으나 향기가 높아 향유를 채취하였으므로 향유초(香油草) 또는 향수목(香水木)이라고 한다. 대량으로 재배하여 공업적으로 향수를 얻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헬리오트로프는 물의 요정 ‘클리티에’가 태양의 신 ‘아폴로’를 사랑하였으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버리자 이 꽃이 되었다고 한다. ‘사랑이

도 불구하고 美禰子は 三四郎가 권한 향수를 구입한다.

예전에 広田先生の 이사 집에서 함께 있을 때 三四郎는 美禰子에게서 향수냄새를 맡았었다. 이 장면은 분명 그녀가 쓰고 있는 향수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一寸御覧なさい」と美禰子が小さな声で云う。三四郎は及び腰になって、画帖の上へ顔を出した。美禰子の髪で香水の匂がする。 (p.51)

하지만 美禰子は 본인이 쓰는 향수가 아닌 三四郎가 권해주는 향수를 망설임 없이 정한다. 三四郎를 좋아하는 美禰子は 그에게 특별함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것은 처음 三四郎와 美禰子が 만났던 연못 앞에서의 장면과 연관이 된다. 연못 앞에서 美禰子は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団扇はもう翳して居ない。左の手に白い小さな花を持って、それを嗅ぎながら来る。嗅ぎながら、鼻の下に宛てがった花を見ながら、歩くので、眼は伏せている。それで三四郎から一間許の所へ来てひょいと留った。(中略) 三四郎は女の落として行った花を拾った。そして嗅いで見た。けれども別段の香もなかった。三四郎は此花を池の中へ投げ込んだ。花は浮いている。(p.16)

三四郎는 美禰子が 떨어뜨린 꽃을 주워 향기를 맡아보지만 별다른 향이 없었다. 그리고 이 후 美禰子が 다른 남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간 마지막 만남 때 美禰子は 하얀 손수건을 꺼내 三四郎의 얼굴 앞에서 향기를 풍기며 「ヘリオトロープ」라고 조용히 말한다.

여 영원하라' 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다.

女は紙包を懷へ入れた。其手を吾妻コートから出した時、白い手帛を持っていた。鼻の所へ宛てて、三四郎を見ている。手帛を嗅ぐ様子でもある。やがて、其手を不意に延ばした。手帛が三四郎の顔の前へ来た。鋭い香がふんとする。「ヘリオトロップ」と女が静かに云った。三四郎は思わず顔を後へ引いた。ヘリオトロップの饅頭。四丁目の夕暮。迷羊。迷羊。空には高い日が明かに懸る。(p.150)

美禰子は 다른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三四郎과 만나는 장면에서 三四郎가 골라주었던 향수 냄새를 풍긴다. 향기가 나지 않은 꽃의 기억에서 시작하여 헬리오트로프 향을 남김으로써 三四郎에게 기억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이것은 첫 만남 순간을 「森の女」의 그림으로 남겨놓고 싶어 하는 모습과도 일치한다. 三四郎은 美禰子를 헬리오트로프 향의 후각으로, 「森の女」의 그림인 시각으로 그녀를 기억하게 된다.

윤혜영은 헬리오트로프 향에 대해 근대문명의 도래와 함께 일본에 처음 들어온 향수인 「헬리오트로프」는 근대사회 보조를 맞추어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는 신여성의 이미지를 더욱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美禰子は 스스로 향수를 사러가는 여성이라는 점에서 그 근대문명수용에 대한 적극성이 더욱 엿보인다 라고 말하며 단순한 소도구가 아닌 美禰子 조형의 특징이나 美禰子와 三四郎와의 관계를 재조명해 보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가 된다고 논하였다.³⁰⁾ 이렇듯 美禰子は 신여성의 적극성을 가지고 「헬리오트로프」향의 후각으로, 「森の女」의 그림인 시각으로 자신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후 三四郎은 어머니에게서 받은 30엔을 가지고 美禰子에게 돌려주려고 생각하고 잠이 든다. 그리고 경종소리에 잠에서 깨어난다.

30) 윤혜영, 「『산시로(三四郎)』의 향기」, 『日本學報』, 第73輯, 한국일본학회, 2007.10, pp.199-209참조

三四郎は母から来た三十円を枕元へ置いて寝た。此三十円も運命の翻弄が産んだものである。此三十円が是から先どんな働きをするか、丸で分らない。自分はこれを美禰子に返しに行く。美禰子がこれを受け取る時に、又一煽り来るに極っている。三四郎は成るべく大きく来れば好いと思った。

三四郎は夫なり寝付いた。運命も与次郎も手を下し様のない位すこやかな眠りに入った。すると半鐘の音で眼が覚めた。(p.118)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三四郎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시작된 소설은 후반부에 가서는 깊은 잠에 빠져들고, 그러다가 경종소리에 잠을 깨는 장면이 나오면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 漱石가 『三四郎』를 朝日新聞에 연재하기에 앞서 발표한 예고문에서도 시골에서 상경하는三四郎가 새로운 환경을 접하며 스스로 파란이 생길 것을 암시하고 있다.

田舎の高等学校を卒業して東京の大学に這入った三四郎が新しい空気に触れる、そして同輩だの先輩だの若い女だのに接触して色々に動いて来る、手間は此空氣のうちに是等の人間を放す丈である、あとは人間が勝手に泳いで、自ら波瀾が出来るだろうと思う、そうこうしているうちに読者も作者も此空氣にかぶれて是等の人間を知る様になる事と信ずる、もしかぶれ甲斐のしない空氣で、知り榮のしない人間であつたら御互に不運と諦めるより仕方がない、ただ尋常である、摩訶不思議は書けない。31)

東京생활에서 여러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파란을 경험하고, 깊은 잠에 빠졌던三四郎가 경종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면서 그의 파란은 일단락된다고 볼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날 학교에서 만난 与次郎는三四郎에게 빨리 美禰子에게 돈을 돌려주라고 말한다.

31) 『夏目漱石全集』第10卷, 筑摩書房, 1979, p159

「金は受け取った、此処にある」
「左うか夫は好かった。返す積りか」
「無論返すさ」
「それが好かろう。早く返すが好い」
「今日返そうと思う」 (p.119)

앞전에는 돈을 언제까지나 빌린 채로 놔두라고 하던 与次郎가 다시 빨리 돌려주는 게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사이 美禰子에게 변화가 있음을 의미한다. 美禰子の 변화는 野々宮도 三四郎도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아직 결혼에 대해 모르고 있는 三四郎은 美禰子에게 빌린 돈을 돌려 주려고 그녀를 찾아간다. 그리고 이제야 그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게 된다.

やがて、女の方から口を利き出した。
「今日何か原口さんに御用が御有りだったの」
「いいえ、用事は無かったです」
「じゃ、ただ遊びに入らしたの」
「いいえ、遊びに行っただけじゃありません」
「じゃ、何で入らしたの」
三四郎は此瞬間を捕えた。
「あなたに会いに行っただけです」
三四郎は此で云える丈の事を悉く云った積である。(中略)

二人は又無言で五六間來た。三四郎は突然口を開いた。

「本当は金を返しに行っただけじゃありません」

美禰子はしばらく返事をしなかった。やがて、静かに云った。

「御金は私も要りません。持って入らっしゃい」

三四郎は堪えられなくなった。急に、

「ただ、あなたに会いたいから行っただけです」と云って、横に女の顔を覗き込んだ。

女は三四郎を見なかった。其時三四郎の耳に、女の口を洩れた微かな溜息が聞え

た。

「お金は……」

「金なんぞ……」

二人の会話は双方共意味を成さないで、途中で切れた。(pp.128-129)

<度胸のない人> 三四郎는 돈을 돌려주러 왔던 것이 아닌 단지 美禰子를 만나고 싶어서 찾아왔다고 용기있게 고백을 하지만 그 때는 이미 美禰子が 다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인 뒤늦은 고백이었다.

이 시기 美禰子は 野々宮에게도 三四郎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마음을 정리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때였다. 美禰子の 사랑이 三四郎에게서 다른 남자로 옮겨간 것이다. 三四郎는 美禰子の 결혼소식 확인을よし子에게서 듣게 된다.

よし子は 三四郎가 東京에 올라와서 알게 된 또 다른 여성으로서 野々宮의 여동생이다. 고향의 부모님과 떨어져 오빠 野々宮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よし子は 여학교에 다니고 있으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고, 바이올린을 배운다. 美禰子와 함께 신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漱石는 美禰子과よし子라는 여성을 묘사함으로써, 같은 시대 東京에서 살아가는 다른 여성의 모습을 비교하였다.

三四郎는 野々宮의 부탁으로 병원으로よし子를 찾아가면서 그녀를 처음 만나게 되었다. 처음 만나는 그녀는 모습은 「なつかしい曖昧が出来た。」

「遠い故郷にある母の影が閃めいた。」로 표현되어 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빠르게 움직이는 東京에서 만난 또 다른 여성よし子の 모습은 그리운 따스함을 풍기며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よし子は 三四郎가 東京에서 만난 세 번째 세계 여성이지만, 美禰子에게서 느끼지 못한 편안함과 따스함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세계 신여성 이미지와 첫 번째 세계 모성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よし子は 三四郎의 생각에서 「女性

中の尤も女性的な顔である」, 広田先生の 말에서도 「野々宮の妹の方が、一寸見ると亂暴の様で、矢張り女らしい。妙なものだね」라며 여성다운 여성임이 증명되고 있다.

차분하면서도 여성다운 よし子에게 경애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그녀에게서 明治시대 신여성의 모습과 함께 賢母良妻의 모습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よし子에게서 美禰子の 결혼소식을 전해들은 三四郎은 美禰子が 다니는 교회 앞을 찾아간다.

「結婚なさるそうですね」

美禰子は白い手帛を袂へ落とした。

「御存じなの」と云いながら、二重脣を細目にして、男の顔を見た。三四郎を遠くに置いて、却って遠くにいるのを氣遣い過ぎた眼付である。其癖眉丈は明確落ついている。三四郎の舌が上顎へ密着て仕舞った。

女はややしばらく三四郎を眺めた後、聞兼る程ほどの嘆息をかすかに漏らした。やがて細い手を濃い眉の上に加えて云った。

「われは我が愆を知る。我が罪は常に我が前にあり」³²⁾

聞き取れない位な声であった。それを三四郎は明らかに聞き取った。三四郎と美禰子は斯様にして分れた。下宿へ帰ったら母からの電報が来ていた。開けて見ると、何時立つとある。(p.151)

마지막 만남에서 결혼하는 것을 확인하는 三四郎에게 美禰子は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라고 성경 구절을 작은 소리로 말하고 있다. 美禰子が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 美禰子が 말하는 죄는 三四郎의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한 미안한 마음이라기 보다

32) 성경 구약성서 시편 51장 3절

(내가 저지른 잘못들을 알고 있으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는 자신의 방황에 대한 고백이라 볼 수 있다. 교회를 다니는 美禰子로 설정되어 있는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漱石은 성경구절을 아무런 의미 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三四郎의 시각에서 보면 성경구절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겠지만 美禰子の 시각에서 보면 그녀가 말한 성경구절은 그녀의 심경을 이해하는 열쇠가 된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온 美禰子が 三四郎에게 말하는 성경의 앞 구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 하나님, 주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모든 잘못을 없애 주소서. 내 모든 죄악들을 다 씻으시고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³³⁾

이 성경구절은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지은 뒤 하나님께 용서를 간청하는 기도이다. 시편은 자신의 죄의 흑독한 현실을 체험한 사람이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울부짖는 기도이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선언이기도 하다. 「내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해 주소서」는 美禰子 자신의 Stray Sheep, 사랑의 방향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작으로 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논자는 이 새로운 시작에 주목하고 싶다. 美禰子和 三四郎의 사랑은 자의식을 동반한 것으로 서로 청춘의 방향을 하게 되고 자신들의 새로운 시작을 찾게 된다. 三四郎의 Stray Sheep은 소설 마지막에 美禰子の 초상화를 바라보는 장면에서 자신의 방향을 깨닫게 된다.

초상화의 제목 「森の女」가 어떻느냐는 与次郎의 질문에 「森の女と云う題が悪い」라고 말한다. 与次郎가 그럼 뭐라고 하면 좋겠냐고 묻자 三四郎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저 「迷羊、迷羊」하고 되풀이만 하고 있

33) 성경 구약성서 시편 51장 1절-2절, 성경은 (주)아가페출판사의 쉬운성경을 참조하였다.

다. 이 장면은 三四郎가 청춘의 방황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장면이라 볼 수 있다.

순수하게 자신을 좋아해주는 三四郎의 모습은 美禰子の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하지만 이제 막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東京으로 올라온 三四郎은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었고, 어린 그는 더욱이 배짱 없는 모습을 보인다. 三四郎의 순수한 모습에 마음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美禰子は 三四郎에게 결혼상대자로서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

美禰子は <責任を逃れたがる人> 野々宮와, <度胸のない人> 三四郎에게서 방황하던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 자신의 삶을 개척해가는 적극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2-3. 美禰子와 <立派な人>

三四郎와 野々宮사이에서 방황하던 美禰子は よし子와 혼담이 오갔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된다. 그녀의 선택이 갑작스런 것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あの女は自分の行きたい所でなくっちゃ行きっこない。勧めたって駄目だ。好きな人がある迄独身で置くがいい」라고 자신이 가고 싶은 곳이 아니면 갈 리가 없다. 권해봤자 소용없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때까지 독신으로 놔두는 것이 좋다 라고 하는 広田先生の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남자와 결혼은 美禰子 본인의 주체적인 선택이다.

与次郎가 美禰子에 대해서 「夫として尊敬のできない人の所へははじめから行く氣はないんだから、相手になるものはその氣でいなくっちゃいけない。そういう点で君だのぼくだのは、あの女の夫になる資格はないんだよ」라고 남편으로서 존경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처음부터 갈 마음이 없다고 하며 그러한 점에서 三四郎와 자신은 美禰子の 남편이 될 자격은 없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 남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이다.

이 남자의 등장은 三四郎가 美禰子를 만나러 原口さんの 집을 찾아 갔다가 함께 나오는 길에서 시작된다.

向こうから車が走けて来た。黒い帽子を被って、金縁の眼鏡を掛けて、遠くから見ても色光沢の好い男が乗っている。此車が三四郎の眼に這入った時から、車の上の若い紳士は美禰子の方を見詰めているらしく思われた。二、三間先へ来ると、車を急に留めた。前掛を器用に跳ね退けて、蹴込みから飛び下りた所を見ると、背のすらりと高い細面の立派な人であった。髪を奇麗に剃っている。それでいて、全く男らしい。 (pp.129-130)

검은 모자를 쓰고 금테안경을 낀 남자는 멀리서 봐도 三四郎의 눈에 띈다. 키가 훗칠하게 크고 가름한 얼굴의 훌륭한, 아주 남자다운 사람이다. 검은 모자는 그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김난희는 漱石가 작품의 주제를 피력하기 위해 구사한 다양한 디테일 중에서 모자라는 소도구는 지식을 많이 쌓았다는 것과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것과 통하고 있으며, 금테안경은 금테안경의 부재료인 금(金)은 明治 신정부가 주력한 자본주의제도와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³⁴⁾

三四郎는 東京으로 기차를 타고 올라올 때도, 野々宮의 부탁으로 よし子の 병문안을 갈 때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모자가 주는 의미는 학문을 배우는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三四郎は、被っている古帽子の徽章の痕が、此男の眼に映ったのを嬉しく感じた。
(p.9)

三四郎は新しい四角な帽子を被っている。此帽子を被って病院に行けるのが一寸得意である。冴々しい顔をして野々宮君の家を出た。(p.32)

검은 모자를 쓰고 금테안경을 낀 이 남자는 학문과 경제적 능력을 모두 갖춘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美禰子를 향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今迄待っていたけれども、余り遅いから迎えに来た」と美禰子の真前に立った。見下して笑っている。

「そう、有難う」と美禰子も笑って、男の顔を見返したが、其眼をすぐ三四郎の方へ

34) 김난희, 「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 문학의 디테일이 표상하는 상징고찰」, 『日本語文学』, 第30輯,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5, pp.121-133참조

向けた。

「何誰」と男が聞いた。

「大学の小川さん」と美禰子が答えた。

男は軽く帽子を取って、向うから挨拶をした。

「早く行こう。兄さんも待っている」

好い具合いぐに三四郎は追分へ曲るべき横町の角に立っていた。金はとうとう返さずに分れた。(p.130)

美禰子を 기다리다가 약속시간 보다 늦어지자 마중 나온 이 남자는 자신의 의사표현에 적극적인 남자이다. 이 남자의 적극성에 美禰子は 마음이 끌리고 결국 그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남자와 첫 만남에서 강한 인상을 받은 三四郎은 이후 野々宮가 아닌 이 남자를 의식하는 모습을 보인다.

舞台の端に立った与次郎から一直線に、二、三間隔てて美禰子の横顔が見えた。其傍にいる男は背中を三四郎に向けている。三四郎は心のうちに、此男が何かの拍子に、どうかして此方を向いて呉れば好いと念じていた。旨い具合に其男は立った。座り疲れたと見えて、杓の仕切りに腰を掛けて、場内を見廻し始めた。其時三四郎は明らかに野々宮さんの広い額と大きな眼を認める事が出来た。野々宮さんが立つと共に、美禰子の後にいたよし子の姿も見えた。三四郎は此三人の外に、まだ連が居るか居ないかを確かめようとした。(p.143)

연극을 보러 간 三四郎은 사방을 둘러보며 美禰子を 찾고 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있는 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三四郎은 예전에 강한 인상을 받은 남자 <立派な人>를 찾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남자가 三四郎의 시선에 들어오게 된다.

幕が又下りた。美禰子とよし子が席を立った。三四郎もつづいて立った。廊下迄来て見ると、二人は廊下の中程で、男と話をしている。男は廊下から出入りの出来る左

側の席の戸口に半分身体を出した。男の横顔を見た時、三四郎は後へ引き返した。席へ返らずに下足を取って表へ出た。(pp.144-145)

美禰子와 함께 있던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三四郎는 직접 가서 아는 체를 하지 않고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와 버린다. 熊本에서 東京으로 올라와서 막 대학생활을 시작한 자신과 비교했을 때 이 남자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으로 보였다. 어쩌면 이 남자는 三四郎가 꿈꾸었던 세 가지 세계에 모두 해당하는 <立派な人>일지도 모른다.

三四郎は床のなかで、此三つの世界を並べて、互いに比較して見た。次に此三つの世界を掻き混ぜて、其中から一つの結果を得た。——要するに、国から母を呼び寄せて、美しい細君を迎えて、そして身を學問に委ねるに越した事はない。(p.44)

다른 남자와 갑작스런 결혼을 하는 美禰子の 선택에 있어서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으로 보고 그녀의 결혼을 좌절로 보는 논점도 있다.

이에 대해 최 연은 美禰子は 근대적인 신여성으로 보이면서 제도적으로는 정략결혼을 택해버린 것으로 漱石가 美禰子の 결혼을 그리는데 있어 美禰子の 이미지에 가혹한 결말을 짓고 있으며 『三四郎』는 美禰子が 신여성(新しい女)이 되는 가능성을 소멸시킨 점에서 성립된 소설이라고 말하고 있다.³⁵⁾

하지만 논자는 신여성이 되는 가능성을 소멸시킨 것이 아닌 작가 漱石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과 혼합하여 새로운 신여성상을 그려냈다고 본다. 美禰子の 선택은 결코 정략결혼도 모르는 사람과의 결혼도 아니었다. 美禰子와 결혼을 하는 남자는 美禰子 오빠인 里見恭助의 친구이다.

35) 최 연, 「일본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상 -시마자키 토손(島崎藤村)의 『春』, 나쓰메 소세키(夏目漱石)의 『三四郎』, 다자이 오사무(太宰治)의 『斜陽』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第24輯, 일본어문학회, 2004.2, pp.285-314참조

「美禰子さんにも縁談の口があるそうじゃありませんか」

「ええ、もう纏まりました」

「誰ですか、先は」

「私を貰うと云った方なの。ほゝゝ可笑的でしょう。美禰子さんの御兄さんの御友達よ」

(p.149)

野々宮道, 広田先生도 오빠의 친구인 점을 생각해 보면 美禰子は 분명
<立派な人>와도 관계가 있었다.

「美禰子さんの兄さんがあるんですか」

「ええ。宅の兄と同年の卒業なんです」

「矢張り理学士ですか」

「いいえ、科は違います。法学士です。そのまた其又上の兄さんが広田先生の御友達だった
のですけれども、早く御亡くなりになって、今では恭助さん丈なんです」 (p.58)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닌 서로 알고 있는 사이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교
류가 있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 三好行雄도 다음과 같이 주목하고 있
다.

たしかに事情は複雑である。よし子の縁談の相手で、しかも彼女の拒否した男を美禰子は夫にえらんだのである。やや異常な設定だといえる。この異常さを重視すれば、そこに美禰子の打算や屈辱を規定する自由はある。しかし、果してそうであろうか。よし子にとつて<知りもしない人>である男が、実は美禰子にとつては、兄里見恭助の友人であるという別な条件を漱石は設定している。ひとはこの設定を、あまりにもたやすく無視する。³⁶⁾

36) 三好行雄, 「三四郎 (二)」,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66.2, pp.127-128

よし子에게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 남자가 실은 美禰子에게는 오빠 里見恭助의 친구라는 특별한 조건을 漱石은 설정하고 있다고 논하고 있다.

三四郎의 시각에서 <立派な人>는 갑작스런 출현이었겠지만 美禰子の 시각에서는 갑작스런 출현이 아니었고, 그와의 결혼은 갑작스런 선택이 아니었다. 그와의 관계는 작품 안에서 그려지지 않았지만 三四郎를 만나기 전부터 형성되고 있었다. 오빠인 里見恭助의 친구라는 특별한 조건 안에서 <立派な人>와의 결혼은 그녀의 계획안에 있었다. 작가 漱石은 『三四郎』의 예고문에서도 「手間は此空氣のうちに是等の人間を放す丈である、あとは人間が勝手に泳いで、自ら波瀾が出来るだろうと思う」라고 하며 내가 한 일은 이러한 공기 속에서 사람들을 그냥 풀어놓아 둔 것뿐이다. 그 후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부대껴 가면서 저절로 파란이 생기게 될 것 같다고 예고하며 당시 소설이 연재된 시기의 여성 이미지를 美禰子를 통해 자연스럽게 묘사하려 하였다. 美禰子の 이미지는 당시 시대의 신여성 이미지와, 漱石이 가지고 있는 여성상과 함께 혼합되어 소설 속에서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美禰子は 자신에게 적극적인 그에게 마음이 끌리고 확신을 얻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된다. 野々宮에게도 三四郎에게도 신뢰를 찾지 못한 美禰子は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오빠의 친구 <立派な人>의 모습에서 신뢰를 찾아 결혼을 결심한다.

三好行雄의 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小説の脈絡にしたがうかぎり、美禰子は<自分の行きたい所>へ嫁ぎ<夫として尊敬出来>る男を選んだのである。逆にいえば、三四郎も野々宮も、美禰子が<夫として尊敬の出来ない人>だつたことになる。美禰子の結婚に三四郎への痛烈な批評がある、とする視点も成り立つのである。(中略) 美禰子の結婚が主体的な選択だつたことを信じれば、事態は明瞭である。美禰子の夫は第十章で、突然三四郎の前にあらわれ、彼女を連れ去る。小説の手法として、伏線ぬきのこうした展開が妥当であるかどうかはしばらく問わないが、作品世界の論理からいえば、この唐突な

出現自体に大きいな意味がある。それは美禰子の選んだ男が、小説の主要な世界、つまり三四郎の意識によつて捕捉された世界の外にいたことを示している。³⁷⁾

美禰子は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시집가고 남편으로서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선택하였다. 그녀의 결혼은 주체적인 선택이었으며 <立派な人>의 갑작스런 출현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野々宮의 <責任を逃れたがる人>인 모습에 실망하고, 자신을 순수하게 좋아하는 三四郎에게 마음이 바뀌어 가지만 그에게서 <度胸のない人>의 모습을 발견하고 두 사람 사이에서 방향을 하다가 그녀의 주변에 있는 다른 남자 즉, 오빠의 친구인 <立派な人>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美禰子を 중심으로 읽으면 오빠의 친구 <立派な人>는 갑작스런 출현이 아니고 그와의 결혼은 갑작스런 선택이 아니었다. 작품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美禰子は 野々宮와 三四郎, <立派な人>를 항상 비교하고 있었고, 결혼상대자로 <立派な人>를 선택하는 주체적인 모습을 보였다.

37) 三好行雄, 「三四郎(二)」,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66.2, p.128

Ⅲ. 결론

이상 본고에서는 美禰子の 心境 變化 過程에 대해 그녀의 상대역인 野々宮와 三四郎, <立派な人>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美禰子が 三四郎도 野々宮도 아닌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모습에 초점을 두어 그녀의 선택이 변화되어가는 과정과 그녀의 심중변화를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美禰子は 東京에서 작은오빠와 살고 있으며 교회를 다니고 영어를 잘한다. 자신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도 있다. 広田先生도, 野々宮도, 与次郎도 가지고 있지 않은 30엔이라는 금액을 三四郎에게 쉽게 빌려주는 독립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또 주변 남성들과 자유롭게 어울리는 근대적 여성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바이올린을 배우고 향수를 사용하면서 자신을 시대 가운데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신교육을 받은 여성이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그녀는 서양문물을 잘 받아들이고, 근대적인 신여성의 주체적, 독립적인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큰 오빠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작은 오빠와 함께 사는 美禰子は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환경 속에서 의식적이고 주체적이며 독립적인 성격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하기에 美禰子は 사랑에 대해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인 모습을 나타내며 그녀의 결혼선택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면 가지 않을 여자’ 라고 広田先生가 말한 것처럼 그녀 본인의 스스로의 선택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美禰子は 野々宮와 三四郎 사이에서 방향을 하다가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었던 신뢰를 결국 다른 남자에게 받게 되어 그녀의 마음이 바뀌어 간다.

책임을 회피하는 野々宮에게서, 배짱이 없는 三四郎에게로, 그리고 훌륭한 남자에게로 美禰子の 결혼상대는 바뀌어 간다. 그녀는 결혼을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남성들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신의 결혼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다. 美禰子の 선택은 본문에서 三四郎가 생각한 세 가지의 세계에도 적용이 된다.

첫 번째 세계는 어머니가 있는 따뜻한 세계로 평온하고 의지가 되는 세계이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美禰子에게 이 세계는 현재 함께 지내고 있는 작은 오빠 恭助와 큰 오빠의 친구 広田先生이 있는 곳이다. 그러하기에 美禰子は 부모님처럼 느껴지고 의지가 되는 広田先生の 집을 자주 방문하고 있으며 広田先生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

두 번째 세계는 학문이 있는 세계로 美禰子の 주변 남성들의 세계이다. 広田先生, 野々宮, 三四郎, 与次郎등 주변의 남성들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며 그 가운데에서 野々宮가 가장 두 번째 세계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野々宮는 물리학자로서 그 분야의 사람이라면 서양인이라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수한 사람이다. 높은 곳에 있으면서 커다란 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학문을 좋아하고 연구업적도 많아서 美禰子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다.

세 번째 세계는 三四郎에게 있어서는 다가가기 어려운 찬란한 봄날 같은 세계이지만 美禰子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접하기 쉬운 세계이기도 하였다.

美禰子에게 이 세 개의 세계를 혼합한 듯한 결론은 그가 마지막에 선택한 남자 <立派な人>인 것이다.

野々宮는 뛰어난 학문의 세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연구욕이 강해서 美禰子에게 무신경하다. 또한 동생의 바이올린도 자신의 돈으로 사줄

수 없는 형편으로 고향에서 부모님이 돈을 보내주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하기에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그는 결혼은 무리라고 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三四郎은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東京으로 상경한 시골 청년이다.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 그의 목표는 학문에 전념하는 것이다. 지금은 東京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여성 美禰子를 알게 되면서 東京생활에 적응하고 있는 단계이다. 아직 三四郎에게 결혼은 머나먼 이야기인 것이다. 아직까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는 三四郎은 美禰子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지 못하였고, 어린 三四郎은 美禰子에게 첫 번째 세계도, 두 번째 세계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三四郎의 고백은 美禰子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결심한 이후인 뒤늦은 고백이었다.

<立派な人>은 부모님처럼 의지가 되는 모습으로 학문과 능력까지 갖춘 사람이다. 美禰子が 약속시간보다 늦어지자 마중까지 나오는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보이고 있다. 美禰子は 적극적이고 학문과 능력까지 갖춘 그에게 신뢰를 느끼고 그와 결혼을 하게 된다.

野々宮의 <責任を逃れたがる人>인 모습과 三四郎의 <度胸のない人>인 모습에서 사랑의 확신과 신뢰를 찾지 못한 美禰子は 자신에게 적극적이고 학문과 능력까지 갖춘 남자 <立派な人>에게 사랑을 느끼고 그녀의 마음이 바뀌어갔다. 漱石은 『三四郎』라는 작품에서 사랑을 둘러싼 인간 심리 모습을 美禰子라는 여성을 통해 그려냈다.

본고에서는 美禰子の 주체적인 선택에 대해 美禰子和 野々宮, 三四郎, <立派な人>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三好行雄와 같은 맥락으로 고찰하였다. 그녀의 선택은 좌절이 아닌 그녀의 주체적인 선택이었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美禰子の 모습은 『三四郎』가 쓰여진 明治말 시대상을 반영하여 당시 신여성의 이미지와 작가 漱石가 가지고 있는 여성상, 인간상이 혼합되어 작품 속에 나타났다.

美禰子の 심경 변화의 과정은 인간심리를 추구하려는 漱石의 문학세계에 강한 영향을 주어 전기3부작 『それから』, 『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텍스트】

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第4卷, 筑摩書房, 1979年

夏目漱石, 『夏目漱石全集』 第10卷, 筑摩書房, 1979年

【單行本】

国文学編集部, 『夏目漱石の全小説を読む』, 学灯社, 1994年

권혁건, 『나쓰메소세키 文学世界』, 学士院, 1998年

유상희, 『나쓰메소세키 연구』, 보고사, 2001年

문옥표외, 『신여성- 한국과 일본의 근대 여성상』, 청년사, 2003年

이지숙외, 『신여성을 만나다- 근대 초기 한·중·일 여성소설 읽기』, 새미,
2004年

정인문, 『일본근대문학의 이해와 전망』, 제이앤씨, 2005年

韓國夏目漱石研究会, 『나쓰메소세키의 전기삼부작 연구』, 제이앤씨, 2005年

小森陽一, 韓日문학연구회 옮김, 『나는 소세키로소이다- 나쓰메 소세키 다시읽기』,
이매진, 2006年

김상규, 『신편 일본문학사』, 도서출판 책사랑, 2007年

권혁건, 『나쓰메소세키- 생애와 작품』, 고려대학교출판부, 2007年

【論文】

부 백, 「夏目漱石의 『三四郎』론」, 『日本文学研究』, 동아시아일본학회, 1999年

최 연, 「일본 근대소설에 나타난 여성상-시마자키토손(島崎藤村)의 『春』,
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의 『三四郎』, 다자이오사무(太宰治)의

- 『斜陽』을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第24輯, 일본어문학회, 2004年
- 오준영, 「『三四郎』에 그려진 연애의 풍경- 「베이컨의 23페이지」를 밑그림으로 하여」, 『나쓰메소세키의 전기삼부작 연구』, 제이앤씨, 2005年
- 유상희, 「夏目漱石의 『三四郎』小考-산시로와 미네코의戀愛를 중심으로-」, 『日本語文学』, 第29輯,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年
- 김난희, 「나쓰메소세키(夏目漱石) 문학의 디테일이 표상하는 상징고찰」, 『日本語文学』, 第30輯, 한국일본어문학회, 2006年
- 윤혜영, 「『산시로(三四郎)』의 향기」, 『日本學報』, 第73輯, 한국일본학회, 2007年
- 윤혜영, 「후요(風葉)의 『청춘(青春)』과 소세키(漱石)의 『산시로(三四郎)』 비교 고찰」, 『日語日文學研究』, 韓國日語日文學會, 2008年
- 三好行雄, 「三四郎 (一)-(三)」, 『国文学 解釈と鑑賞』, 至文堂, 1966年
- 平岡敏夫, 「三四郎」, 『漱石序説』, 塙書房, 1976年
- 酒井英行, 「広田先生の夢-『三四郎』から『それから』へ-」, 『文芸と批評』, 1978年
- 佐藤泰正, 「『三四郎』注釈上の問題」, 『國文學 解釈と教材の研究』, 學燈社, 1981年
- 中山和子, 「美禰子は何か」, 『國文學 解釈と教材の研究』, 學燈社, 1981年
- 佐古純一郎, 「明治の青年像-『三四郎』と『青年』」,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82年
- 千種キムラ・スティーブン, 「『三四郎』試論 (続)-迷羊のついて」, 『国文学解釈と鑑賞』, 至文堂, 1983年
- 中山和子, 「『三四郎』-『商売結婚』と新しい女たち-」, 『漱石研究 第2号 1994

[No.2]』，翰林書房，1994年

小森陽一，「『帝国』というネットワーク（文学とメディアー夏目漱石『三四郎』，
1908年）」，『文学の方法』，東京大学出版会，1996年

登尾 豊，「『三四郎』の美禰子一裏の主人公一」，『國文學 解釈と教材の研究』，
學燈社，1997年

仁平道明，「汝の目のまへに取って一『三四郎』の構図」，『国文学 解釈と鑑賞』，学灯社，
2001年

瀬崎圭二，「＜虚栄＞の内実一『三四郎』の中の結婚一」，『国語と国文学』，東京大
学国語国文学会，至文堂，2004年

